

# 삼양식품 오너家の 굴욕... '횡령' 유죄로 대표서 퇴출

(김정수 대표이사)

회삿돈 49억 횡령 혐의로  
남편과 함께 유죄 확정  
법무부, 이사선임에 제동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김 사장이 지난 1월 횡령혐의에 대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으면서 취업제한에 걸렸기 때문이다. 삼양식품은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요청해 왔으나 법무부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김 사장은 경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에 삼양식품의 오너경영에 공백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본지 3월12일자 1면 참조)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서 김정수 사장의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제외했다. 김 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지를 받으면서 사내이사 후보에서 사임했기 때문이다.

삼양식품은 지난달 14일 주주총회 결의사항 제2호 의안으로 김정수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 공시 이후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관련 통지를 받고 이사 선임안건을 제외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르면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수재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에 의거한 김 사장에 대한 취업제한 통지로 사내이사 선임에 제동을 걸었다.

김 사장은 회삿돈 4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김 사장은 배우자인 전인장 회장과 함께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 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 원

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이 돈을 부부의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양식품 측은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현재는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향후 절차에 따라 취업 승인 후 재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양식품은 오너가 절대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 사장이 대표직에서 물러나더라도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업계는 김 사장의 사임이 의사결정 등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현재 삼양식품 오너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은 47.21%에 달한다. 최대 주

주인 삼양내츄럴스(33.26%)를 비롯해 전인장 회장(3.13%), 김정수 사장(4.33%) 등이 주식을 나눠 갖고 있다.

김정수 사장이 이사회에서 빠지게 되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 정태운 전무가 대표이사를 맡게 될 전망이다. 삼양식품은 지난 2018년 3월 전인장 회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 바 있다. 수감돼 있는 전 회장이 이사회 참여가 불가능하고 김 사장까지 사내이사에서 제외될 경우 오너가 모두 이사회에서 빠지게 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김정수 사장이 불담시리즈 개발 등을 이끌었고 해외 사업 등에서도 큰 성과를 거둬 회사 내 역할이 지대하다"며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 식품업계 주총시즌 스타트... 관전 포인트는

# 사내이사 재선임... 신사업 발굴 '귀추'

롯데제과 신동빈 회장 재선임안 결정  
오뚜기서도 회장·사장 선임여부 당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식품업계 주주총회는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주총의 관전 포인트는 사내이사 재선임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주요 식품업체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다. 오는 27일은 올해 주요 식품업체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물려있는 이른바 '슈퍼주총' 데이가 될 전망이다.

오는 20일 열리는 하이트진로 정기주총에서는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를 임기 3년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돼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맥주 신제품 '테라'를 성공적으로 론칭한데다 '진로이즈백'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 순조롭게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은 가장 많은 기업들이 주총을 연다. 롯데제과는 27일 열리는 주총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겸 명명기 롯데제과 대표의 재선임안을 다룬다. 임기는 각각 2년이다. 신 회장은 지난

2006년 롯데쇼핑 대표이사가 됐지만 2013년 물러났고,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해 왔다. 또 지난해 말에는 호텔롯데 대표이사직을, 지난달 말에는 롯데건설 대표이사직도 내려놨다. 호텔롯데에서는 비등기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같은날 열리는 오뚜기 정기주총에서는 함영준 오뚜기 회장과 이강훈 오뚜기 사장의 재선임안이 올라왔다. 빙그레는 김호연 전 회장과 전창원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CJ제일제당은 최은석 CJ 경영전략 총괄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윤정환 한국간연구재단 이사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 주총에서도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사업 추진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예정이다. 국내 경기 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그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사업다각화를 통해 생존전략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신세계푸드는 이번 정기주총 안건으로 ▲산업용 농, 축산물 및 동, 식물도매업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작물재배업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을 신규사업 목적으로 추가했다. CJ프레시웨이는 오는 24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의료기기 및 의약품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매일유업은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상품 중개업에 대한 신규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안건을 올렸다. 국산당은 신규사업 목적에 기타금융업을 추가했다.

한편 기업들은 정기 주총 시즌을 앞두고 코로나19사태로 주주들의 주총 참석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전자투표를 독려하고 나섰다. 전자투표제도는 주주들이 주총장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대표적인 주주친화정책으로 꼽힌다.

신세계그룹은 지난해부터 전 계열사에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완료했고, 현대백화점그룹도 올해부터 상장사 7곳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CJ그룹도 올해 8개 상장사로 전면 확대했다.

/김민지 기자



티웨이항공 여객기.

/티웨이항공

## 티웨이 '중장거리 야심' 코로나에 꺾이나

중장거리 확대로 차별화 꾀해  
내년까지 중형항공기 도입 예정  
적자 상황에 운영감당 우려 시선

국적 항공사 가운데 티웨이항공이 LCC업계 최초 중장거리 저비용항공사로 도약하겠다고 밝히며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며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16일 기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 및 심사 강화한 국가는 140개국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제선은 비운항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책으로 꺼내들었다. 그러나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티웨이항공은 LCC업계 최초로 중형항공기 도입 및 중장거리 취항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과 우려의 시선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중장거리 노선에 취항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준비 중이다. 올해 취항 10주년을 맞이한 티웨이항공은 지난 1월 중장거리 지역으로 노선을 확대하며 차별화에 나설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국내 항공업계에 단거리 시장이 포화되자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2004년 설립된 국내 최초 LCC '한성항공'을 전신으로 하는 항공사다. 금융위기 이후 2010년 티웨이항공으로 사명이 변경됐다.

티웨이항공은 국적 저비용항공사가운데 처음 'Long Haul LCC'(장거리 저비용항공사)로 나선다. 기존에 보유하던 보잉 737-800NG와 다른 기종의 중형항공기도 도입할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A330 기종의 항공기가 가장 유

력한 후보로 꼽힌다. 또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새 운수권을 배분받으며 이같은 중장거리 취항 계획에 힘이 실렸다. 티웨이항공은 이날 ▲호주 시드니 1303석 ▲키르기스스탄 주 2회 ▲팔라우 주 1회 등 대한항공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운수권을 배분받았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올해 안이나 내년 초에 중형항공기를 도입하려 한다. 아직 계약을 하지는 않았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정확한 도입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크게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여파에 더불어 중장거리 취항에 따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러 기종을 운영할 경우 인력이나 수리 부문에서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중장거리 취항 시 유류비 등 전체 고정비용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이같은 계획이 미뤄질 것이라 업계 중론이다. 티웨이항공은 이미 대부분 국제선을 비운항하고 있고 국내선은 김포, 광주, 대구발 제주 노선만 운항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종이 늘면 비용도 당연히 많이 증가한다. 사실상 LCC가 새로운 기종을 하나 들여온다는 것은 거의 회사 하나를 더 차리는 것"이라며 "인력도 새로 뽑거나 교육을 통해 전환해야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장거리 LCC가 아직 성공한 사례가 없다"면서도 "새로운 도전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좋은 선례가 되면 다른 항공사에도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저소득층 학생 EBS콘텐츠 마음껏 본다"

과기정통부, 이통사·관계부처 협력  
32억 투입해 학습공백 보완 유도

저소득층 학생들도 교육 콘텐츠를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정부가 데이터요금 지원에 나선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면서 원격학습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 중학생까지 온라인학습 무료 지원을 확대하고, 정규과목뿐 아니라 외국어학습과 교양물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해 저소득층

고교생(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EBS 교육 콘텐츠 데이터요금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32억원을 확보했다. 이 서비스는 각 이동통신사 별로 SK텔레콤은 'EBS 데이터팩', KT와 LG유플러스는 'EBS 데이터 안심옵션'으로 제공된다.

저소득층 중고생과 학부모들은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1년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 사이트를 대상으로 제로레



모델이 유아 IPTV 플랫폼 'U+tv 아이돌나라'에서 제공하는 '누리교실'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이팅도 시행한다. 제로레이팅이란, 콘텐츠 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다.

/김민지 기자 silkni@